

## 濟州島 帽子類에 대한 民俗學的 研究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研究員 高 富 子

目	次
I. 머리말	2. 종류 및 특징
II. 조사방법	3. 제작실태
III. 濟州服飾의 構造背景 및 特徵	V. 맺는말
IV. 濟州帽子類와 民俗	참고문헌
1. 濟州女性과 帽子類製作 및 背景	

## I. 머리말

本稿는 儀禮的인 要素라든가 계층사회에서의 冠帽着用에 대한 것이 아니라, 濟州島 土着民(이하 “本島”라 함)이 日常生活에서 必要에 의해 제작하고 사용 되어졌던 帽子類에 대해서 제작배경의 요인, 종류 및 특징, 제작방법 등을 민속학적 방법에 의하여 연구한 것이다. 특히 주로 陸地部의 수요에 공급하기 위하여 婦女子들에 의해서 盛行하였던 家內手工業으로서의 帽子類 제작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筆者는 土着民들의 民俗服飾生活史研究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이 작업에 임하고 있다.

記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찾는 작업, 地方土着民들의 삶의 원형을 찾는 작업은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로서는 실로 막중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변두리 土着民들은 상층사회의 물질적 産物을 공급해온 원초적 집단이며 한 文化의 본질을 가름할 수 있는 基層底邊文化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外勢의 영향에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에 의해 대처해감으로써 固有性 土着性 傳承의 맥을 이어가는 집단으로 存續된다.

기록되고 남겨진 上層文化의 배경을 보완하는 작업, 즉 숨겨지고 가려지고 외면당해서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民族文化의 원형을 바르게 찾게되는 初歩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 II. 조사방법

筆者는 지금까지 濟州服飾을 研究함에 있어 문헌과 유물자료가 빈약한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갖는 특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民俗學的인 접근에 의해 研究하여 왔다.”

本 研究에서도 1968년 이래 계속 수집보완된 것들로 약간의 기록과 유물 및 古老들의 경험담을 참조하면서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帽子類 제작 실태를 자료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人的 사향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로 대치하면서 本稿에서는 생략한다.

1) 1971. 2 「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研究」를 비롯하여 通過儀禮服, 喪禮에 나타난 服飾, 女人들의 속옷, 初生兒服과 그에 나타난 意識 및 보고서 등.

### Ⅲ. 濟州服飾의 構造背景 및 特徵

筆者는 이미 濟州島服飾의 二重構造와 濟州文化 pattern의 特色에 대하여 밝힌바 있다.<sup>2)</sup>

濟州服飾의 二重構造는 크게 京樣式과 濟州樣式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정책)적 요인과 自然環境(立地)的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B.C 65年頃 三姓神話에서부터 시작되는 濟州역사는 三國時代에 오면서 韓半島 諸國들의 情勢變動에 따라 所屬 待遇 名稱 등에 많은 변화를 거친다. 특히 高麗 때 元의 지배하에서는 高麗와 元 사이에서 二重國籍人으로서 시련을 겪게 되며, 朝鮮時代는 군사적 요충지 및 유배지로서 불모지화시키고, 仁祖年間 이후 약 2세기(1629년~1830년)간 島이탈로 인한 租稅징수 및 군사적 방어상실을 우려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本島民들은 出陸을 금지 당하여 왔다.

이러한 內·外的 環境속에서 土着民의 生活은 生存을 위해 自給自足으로 生活에 대처하면서 濟州的인 것을 土着化시키게 되었고, 차츰 固有 특이성을 지닌 것들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자연히 이들의 衣生活은 1차산업의 剩餘產物을 이용한 초보단계의 被服生活에 불과했을 것이다.

現存하는 遺物에 의하면 生産활동에서 잉여산물들로 충당되었던 被服材料들 중에는 山間牧者들에게 이용되었던 짐승들의 毛皮類製品들로 가죽두루마기 가죽감투 가죽버선 털병것 털모자 총모자 탕건 망건 등이 있으며, 대나무를 이용한 양태 대패랭이 삿갓 方笠들과, 덩쿨을 이용한 정당벌립 등이 있다.

또한 바닷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潛女들의 “물소중이”라든가, 出生 후 3日만에 初生兒에게 입히는 삼베로 만든 “붓뒤창옷” 및 농부들의 노동복인 감물들인 “갈옷” 등이 이들 생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고안되고 개발되어진 것들로 濟州固有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濟州服飾은 環境여건에 순응 대처하는 本島民의 지혜로운 삶을 반영하면서 자연환경적인

여건이 갖는 기후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海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보이는 南方系的 要素와, 高地帶 冬寒期 山間 牧者服에 나타나는 北方系的인 要素가 共存하고 있으며, 사회 정치(정책)적 여건으로 인한 濟州樣式과 京樣式의 二重構造的인 양상을 띄는 독특한 服飾文化像을 보이고 있다.

### Ⅳ. 濟州帽子類와 民俗

#### 1. 濟州女性과 帽子類製作 및 背景

“뽕아가민 해데레 돌아안곡 어뒤가민 불데레 돌아안곡”하며 살았다던 濟州女性들의 生活은 일에 밤과 낮이 없었음을 입증한다.

흔히 “츄일”이다 “즌일”이라는 말을 한다. “츄일”이란 낮에 밖에서 하는 일들 즉 가중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로 남자나 成人女性들이 하는 밭일이나 들 바다일들을 말하며, “즌일”은 집안일이나 간단한 일거리들을 말하는데 주로 밤에 하는 일을 뜻하며, 이 일들은 주로 女兒나 처녀들이 하는 잔일거리들로 간주된다. 여기서 말하는 “즌일”들은 특히 本島 여자들에 의해 전담되었던 帽子類製作으로, 이는 말총이나 쇠총으로 만드는 총모자 망건 탕건 및 대나무로 제작되는 양태 만들기가 된다.

각박한 현실에 처한 濟州 女性들은 自·他意에 의해서 근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內·外的으로 生活苦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요인의 작용은 더욱 근면성을 가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元의 濟州牧馬場 설치 후 말(馬)의 잉여산물인 말총으로 총모자류제작 접근이 용이한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며, 自生하는 竹을 이용한 竹帽類 제작도 시도되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陸地部의 품질 좋은 대나무의 流入으로 좀더 고급화한 양태 작업이 성행해질 수 있는 요인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自給自足の 차원이 아닌 재산증식 등 好條件的 요인에 의해 더욱 활성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70代 이상의 古老들은 두차례의 國喪(1919年 高宗, 1926年 純宗)때를 기억하고

2) 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1971,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p. 4~12 참조.

3) 朝鮮王朝實錄. 仁祖 七年 八月 己丑, 「濟州居民流移陸邑 滄軍額 減縮偏局請嶽禁島民之出入」

있다. 國喪 때 마다 일은 지켜왔지만 돈벌이에 신이 났었다는 것이다.

帽子類製作에는 女兒들은 5~6세만되면 간접적인 접근이 시작되며 일곱살쯤이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는 현재 적령기 아동이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것 처럼 여자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로 되어있다. 초보단계에서 10여년이 지나면 기술자가 된다. 그래서 딸이 많은 집에서는 준일을 해서 집 밭도 사고 가축도 사서 재산증식에 보탬이 되었으나, 아들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이는 돈을 만져 볼 거리란 여자들의 준일거리 외에는 없고(물론 지역에 따라 織造, 潛水일을 통한 수입거리도 있긴 하지만), 바다에서 하는 일이나 농사짓는 큰일은 아무리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웠으며 더구나 男子들은 軍役, 賦役으로 시간을 빼기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정경제의 주축은 여성들의 준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부모들은 女兒들이 태어나면 돈밑천이라 하여 일찍부터 기술을 익히게 하였으며 준일에만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준일에 싫증이나서 밖의 큰일이나 潛女일을 원했지만 帽子類製作 지역의 부모들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 한다. 처녀들의 한탄 속에는 “하늘에 뜬 해는 기울기도 하고 구름에 가릴 날도 있고 비가 오는날도 있건만 우리네 일은 주야장창 변할 날이 없구나”하는 푸념들을 하면서, 그러나 돈 버는 재미와 부모님의 성화에 꾀짜 못했던 것이다.

帽子類 작업에는 집에서 혼자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청”에 모여서 했다. 일청이란 모자류를 제작하는 작업장소로 같은 또래끼리 10~20명씩 모여서 하는데 대개는 남자주인이 없는 집, 넓은 집 등 조건이 좋은 집이 선택된다. 일의 시작과 끝은 약속에 의해서 동시에 해야하며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지탄을 받는다. 잠 잘 때와 식사 및 간단한 간식시간과 휴식시간이 정해져서, 아무리 작업을 하고 싶어도 여기면 안되었다. 따라서 같은 시간내에서도 숨쉴 때도 열성적인 사람들은 많이 해 낼 수도 있고 품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므로 같은 일청에 잘하는 또래가 있을 때 잘하는 상대방을 저주하기도 했다고, 재간이 없고 게으름을 피웠던 古老들이 실토한다. 항상 상대성이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강해져서 조금도 헛눈 팔 사이가 없었으며, 기본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모님

께 받을 꾸지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여 말썽을 피우는 일들이 많았으며 후에 시집갈 때도 지장이 있었다. 그러나 작업도중 노래도 부르고 우스개소리도 하고 계절에 따라 별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면서 숨통을 트기도 하였다.

특히 일청에서 밤작업을 할 때는 불이 가장 중요하였다. 지금 80代의 古老들에 의하면 어린 아이 때는 “솔각불”(소나무 송진)을 켜놓고 하는데 그을음이 많고 빨리 타버렸기 때문에 한사람이 불을 책임지고 밝혀야 했으며, 솔각불 앞에는 2~3명 밖에 앉을 수가 없었다. 조금 지나서 “구린지름불”(생선에서 채취한 기름)을 썼고, 다시 “심지불”(접시에 식물성 기름을 붓고 형겔심지에 불을 붙인 것)을 쓰다가 석유기름을 넣는 “각지불”이 나왔다. 1940年代가 되자 “등피불”이 나왔는데 석유를 넣었기 때문에 그을음도 덜했고 편했다. 차츰 큰등피가 나오자 여럿이 둘러앉아 할 수 있었으나 석유를 아끼느라고 밝게 할 수 만도 없었다. 전기불이 나오기 전에 일들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지금같은 불빛말이라면 몇날밤을 새고라도 했을 것이라 한다. 불이 어둡기 때문에 일에 욕심있고 영리한 아이들은 불 앞 밝은 쪽을 차지 했는데 이런 애들은 아침에 일청에 올 때도 일찍와서 햇빛이 잘 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작업했다.

완성된 제품들은 觀德亭 앞과 三陽 朝天의 五日市場에서 거래 되기도 했고, 시세가 좋을것 같으면 商人들이 미리 선불을 달기기도 하여 지금의 월급쟁이 보다 더 정확한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계획된 수량을 맞추기 위해 몇날씩 밤샘을 하여 만들기도 했는데, 어려운 부분은 익숙한 어른들이 도와주고 하면서 기술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을 때는 분담 舍心해서 일을 했다.

이렇듯 本島의 女性들에 의해 帽子類製作이 성행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잉여산물의 物的資源과 접근할 수 있는 1차요인과, 租稅品 충당 등의 外的 강제적수단 및 가정경제상 생활을 영위키 위한 自發的인 要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自立自足の 生存을 위한 근면성이 더욱 큰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본다.

## 2. 종류 및 특성

本島民들의 일반적인 帽子類는 용도면에서 儀禮

的인 것과, 실용적인 것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의례용으로는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들, 즉 冠婚喪祭 등에 쓰이는 것들로서 男性用은 婚에는 紗帽, 喪에는 굴건 두건 方笠 白笠 대패랭이가, 女性用은 婚에는 족두리와 花冠 및 쓰개로 장옷이 있으며, 喪에는 베너울과 베수건을 들 수 있다.

실용적인 것들로는 실정에 맞게 고안제작되어진 것들이며 自給自足欲求가 큰 것들로 주로 男性에 의해서 제작되었던 털벌립 정당벌립 가죽감투 대패

랭이 삿갓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례용임과 동시에 평상시 나들이용으로 쓰이는 것들 중에서 특히 갓 망건 탕건 冠은 陸地部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婦女子의 家內手工業으로 매우 성행하였으며, 지금도 全國에서 有一한 집단 生産地이며 마지막 傳承地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本島民의 帽子類와 材料에 의한 生産地는 각기 表 1·2와 같다.

〈표 1〉 濟州 土着民의 帽子類

성별	용도별		종 류	비 고
男	의례용	婚	紗帽	
		喪祭	굴건, 두건, 方笠, 白笠, 패랭이 儒巾	
	나들이 및 평상용	갓(黑笠), 망건, 탕건 풍덩이, 휘항		
노동용	겨울	털벌립, 가죽감투	정당벌립, 털벌립, ※ 대패랭이, ※ 삿갓, 밀낭(보리낭)패랭이	※ 삿갓 } 주로여성용 ※ 대패랭이 }
	여름 (봄, 가을)			
女	의례용	婚	花冠, 족두리, 장옷	※ 수건 : 주로 婦女子들의 방한 용이기도 하지만 古老들은 四季 節用임. ※ 정당벌립 : 주로 남성용.
		喪	베너울, 首紵, 베수건	
	나들이 및 평상용	겨울	※ 수건, 조바위, 남바위, 풍차	
		여름	서대삿갓, 수건	
노동용		대패랭이, ※ 정당벌립, 밀낭(보리낭)패랭이, 삿갓, 수건		

〈표 2〉 材料에 의한 帽子類 및 生産地

재 료	명 칭	生 産 地	비 고
말 (쇠) 총	총 (갓) 모자	濟州市 서쪽으로부터 道頭, 梨湖, 外都, 下貴, 今德, 水山, 光令	濟州市 서쪽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지역 北濟州 郡 涯月面까지
	탕 건	禾北, 三陽, 新興, 道蓮, 朝天, 咸德	濟州市를 중심으로 하는 동쪽인근지역 朝天面 까지
	망 건	朝天, 咸德, 新興	
	冠	탕건, 망건지역과 同	
쇠 털	털 병 것	城邑부근	
竹 제 품	양 태	三陽, 禾北, 新村, 奉蓋, 臥屹	濟州市 동쪽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지역
	대 패 랭 이	城山面 水山, 蘭山	濟州 東쪽 南濟州郡지역
	삿 갓	三陽, 回泉, 道蓮	
덩 쿨	정당(동)벌립	歸德	北濟州郡 翰林邑
짐승털가죽	가 죽 감 투	山間지역	
밀짚(보릿짚)	밀 낭 패 랭 이 보리낭패랭이	濟州農家全域	

3. 제작실태

언제부터 어떻게 제작되고 발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나타나기는 朝鮮朝 顯宗이 濟州 地方의 풍속을 묻자 李翊漢이 민속은 모두 工을

業으로 하여 여자일지라도 반드시 駿笠을 만들어 陸地에 팔아서 생활한다<sup>4)</sup>고 하였으며, 涼太에 대한 기록은 英·正祖(英祖 37년부터 正祖 19년 사이) 때에 涼太의 우송이라든가 징수의 폐단과 면제에 대한 것이 자주 보이고 있다.

本島 女性들의 帽子工藝와 제작지역은 민요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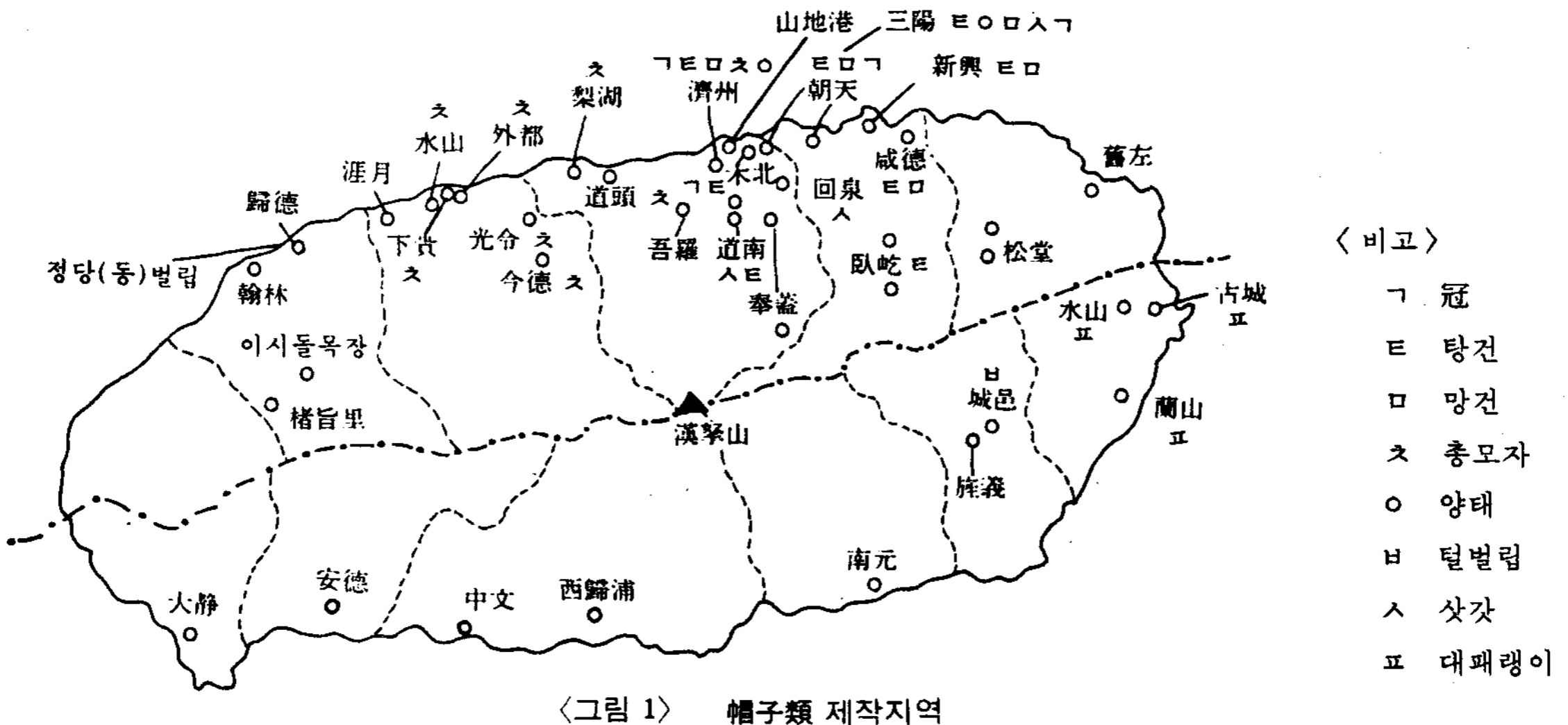
- 조천근방 큰애기들은 망근청으로 다 나간다.
- 신촌근방 큰애기들은 양태틀기로 다 나간다.
- 벨도(禾北)근방 큰애기들은 탕근틀기로 다 나간다.
- 도두근방 큰애기들은 모죽틀기로 다 나간다.
- 조천근방 큰애기들은 망건틀기가 일쑤로다.
- 벨도근방 큰애기들은 양태틀기가 일쑤로다.

帽子的 제작지역은 濟州市를 중심으로 하는 東쪽과 西쪽의 인접지역임이 중요하다.(그림 1 참조)

이는 이 지역이 陸地部와의 海上活動의 중심지이며 行政의 중심지였다는 점과, 또 한가지는 다른 관모류에 비해 수요공급지가 陸地部임이 입증된다.

또한 朝天은 옛날부터 商業地이며 本島 特産物인 網巾의 주요 集散地로 海上關門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現在는 濟州市의 山地港이 陸路와의 정규항로이지만 朝鮮時代에는 朝天浦와 別刀浦(禾北)가 主港이었다.

특히 朝天浦는 잘 알려진 浦口였으니 朝天城 안에는 變北亭(1590~1599년 사이에는 雙壁亭이라 일컫기도 했었다)이란 客舍까지 마련될 만큼 이곳은 中央의 官吏들의 來往이 빈번한 지역이다. 또한 그 材料와 製品을 輸出入 하는데도 비교적 쉽고



便利했었다는 몇가지 점에 근거하는 줄 안다.<sup>5)</sup>

本島의 帽子類製作은 1920年代에도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1926年度 本島의 특산으로는 朝鮮毛帽子 笠子

宕巾 등이 있고,<sup>7)</sup> 工業部分에서도 濟州島民은 農業 및 漁業에 生計를 꾸려가지만 工業狀態는 幼稚하고 自給自足程度로 粗製品이며 家庭工業으로 機織竹細工 朝鮮櫛冠物 등을 生産한다.<sup>8)</sup>

4) 朝鮮王朝實錄. 顯宗 五年 甲辰 三月 「戊子...上...又問其 土俗如何 翊漢對曰 民俗皆業工 雖女子必作 駿笠賣於陸地而食矣...」  
 5) 秦聖麒 編著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pp. 201~203에서 뽑음.  
 6) 濟州道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濟州道. 1986, p. 131.  
 7) 生治狀態調査一 朝鮮總督府. 1929, p. 10 참조.  
 8) 앞책, pp. 75~76 참조

服裝에서도 男子의 冠物은 黑笠 蘿笠 宕巾 冠 및 남바위 등이며, 기타 喪人用은 喪笠(方笠, 蔽笠) 및 白笠이 있다.<sup>9)</sup>

특히 1926年度末에도 여성의 帽子類製作에 종사했던 戶數는 전체의 1/3이나 되는데(表 3 참조), 當時 織物工業(表 4 참조)에 종사했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sup>10)</sup> 이는 家內手工業임과 동시에

주로 移出品이므로 경제적 수익성은 帽子類製作 쪽이 유리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1967年만 해도 宕巾作業은 朝天面 新興里에 집중되고 주민반수 이상의 老少를 막론한 여성이 열성적이었으며, 제주 宕巾 총생산량의 2/3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三陽에서의 涼太作業도 해방직 후까지 거의 집집마다 성행했던 것이 50~60명만이

〈표 3〉 手工業一覽表:冠帽類<sup>11)</sup>

種 別	從 事 戶 數	1 年 間 生 產 量	가 格	비 고
笠 子	330戶	163,500개	163,500円	주로 移出品
涼 太	13,700戶	1,350,000개	405,000円	"
宕 巾	128戶	9,300개	15,810円	"
綱 巾	812戶	59,000개	59,000円	"
農 笠	19戶	7,900개	4,440円	島內에서 판매
계	14,989戶			

〈표 4〉 手工業一覽表:織物<sup>12)</sup>

種 別	從 事 戶 數	1 年 間 生 產 量	가 格	비 고
綿 布	1,953戶	29,745필	89,235円	주로 自家用 및 나머지 판매
麻 布	876戶	2,779필	11,116円	"
絹 布	118戶	723필	5,785円	"
계	2,849戶			

종사하고 있고, 道頭 梨湖 등지의 총모자 작업도 수십호만 전승될 뿐이며 綱巾만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특별주문에만 응할 뿐이었으며 갓 양태 결기 경우에도 1960년의 종사수는 1967년도의 7배나 되었으나 오늘날엔 아주 사라져 버리고 말았

다.<sup>13)</sup>(表 5 참조)

現在 本 島의 帽子類製作 전문기능 육성자들의 명단은 表 6과 같다. 그러나 이들도 國家指定이나 道指定 無形文化財機能保有者라는 명목하에 자격에 해당되는 보조비를 받고 있으나 판로가 미약하

〈표 5〉 民俗工藝帽子類製作技術者數<sup>14)</sup>

1969년도

구 別	綱 巾	宕 巾	涼 太	平 涼 子	갓 갓
濟 州 市			6		3
朝 天 面	2	11			
城 山 面				8	
西 歸 邑				1	
계	2	11	6	9	3

9) 앞책, p. 123 참조

10) 앞책, p. 20 참조 : 당시 1926年末 濟州島內 인구(朝鮮人) 209,841名, 島內戶數 45,394戶임.

11) 앞책, p. 80 참조.

12) 앞책, p. 79 참조.

13) 濟州道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濟州道. p. 130 참조.

14) 濟州年鑑. 濟州然鑑社, 1969. p. 283 참조.

여 안심하고 生計維持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全業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그 기능이 저하 및 단절 변질될 우려가 많다.

〈표 6〉 無形文化財技能保有者 상황 (모자공예부문) 1991년 8月末 현재

1. 國家指定									
지 정 대 상			姓 名	성별	출생 년도	주 소	지정날짜	비 고	
文化財名	지정번호	認 定 區 分							
갓 일	양 태	4號	保 有 者	高丁生	女	1907	北濟州郡 朝天邑 朝天里	1980. 11. 17	高丁生氏따님
			保 有 者 后 보	張 順 子	"	1940	上 同	1991. 5. 1	
	총 모 자		保 有 者	金 仁	"	1920	濟州市 道頭1洞	1985. 2. 1	金仁氏자부 金仁氏따님
			履 修 者	金 採 玉	"	1958	上 同	1991. 5. 1	
			"	姜 順 子	"	1946	濟州市 一徒2洞	"	
"	"	윤원신	"	1957	濟州市 道頭1洞	"	"		
"	"	"	김영자	"	1958	上 同	"	"	
網巾匠	6號	保 有 者	李受汝	"	1923	濟州市 三陽1洞	1987. 1. 5	李受汝氏외손녀 李受汝氏따님	
		傳 受 生	전 영 인	"	1969	濟州市 三陽2洞	1987. 7. 1		
		"	강 전 향	"	1943	上 同	"		
宕巾匠	67號	保 有 者	金 功 春	"	1919	濟州市 禾北1洞	1980. 11. 17	金功春氏따님 金功春氏자부 金功春氏손녀	
		助 教	김 해 정	"	1946	濟州市 三陽2洞	1987. 7. 1		
		履 修 者	李 順 子	"	1949	濟州市 一徒1洞	1980. 11. 17		
		傳 受 生	김 희 주	"	1973	上 同	1987. 7. 1		
2. 道指定									
정동벌립匠	8號	保 有 者	洪 萬 年	男	1910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里	1986. 4. 10		

(1) 網巾

成人男性의 頭髮 수습용으로 말총으로 만든 것이다.

網巾은 총모자류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으로 1895年 단발령 실시 후 차츰 수요가 감소되었으며, 1926년만 해도 島內 45,394戶 중에서 812戶가 종사 했으나, 1969년도에는 技術者數가 2人에 불과 할 정도로 他 帽子類 특히 총모자류 중에서도 그 존속가치의 상실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만 품목이 되었다.

현재 13세부터 탕건작업을 시작한 李受汝(사진1) 氏는 35세 때부터 網巾일을 익혔으나 관로가 없어 지자 중단했다가 國家에서 기능보유자를 찾는다 고 하자 다시 시작하여 1987年 網巾匠 保 有 者로 지정 되었으며, 몇명 후계자들과 함께 관여하고 있으나 관모공예 가운데서도 가장 관로가 없기때문에 기술 전수에도 문제점이 큰 품목이다.

망건은 말총 중에서도 제일 上質로 만든다. 上質로는 日本産으로 “倭物” “倭패”라 한다. 倭패 중에서도 “범패”와 “細패”가 있는데 細패는 가늘고 범패는 굵은 것이다.

上質은 총이 길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글동글 하고 매끄러우면서 촉감이 짜르르한 맛이 나며 굵기가 고른 것이다. 번쩍거리는 것은 염색해도 염색발이 안서고 나쁘다.



〈사진 1〉 網巾作業 : 網巾匠 李受汝. 1991年 濟州市 三陽

倭패는 길이가 1m 정도인데 비해서, 本島産 조랑 말총은 上品이라도 60~70cm 정도 밖에 안되며 보통으로는 상발 60cm, 중발은 30cm 정도 짜리도 있다. 本島産 조랑말은 주로 野山에 放牧시키면서 勞動用이기 때문에 좋은 말총을 얻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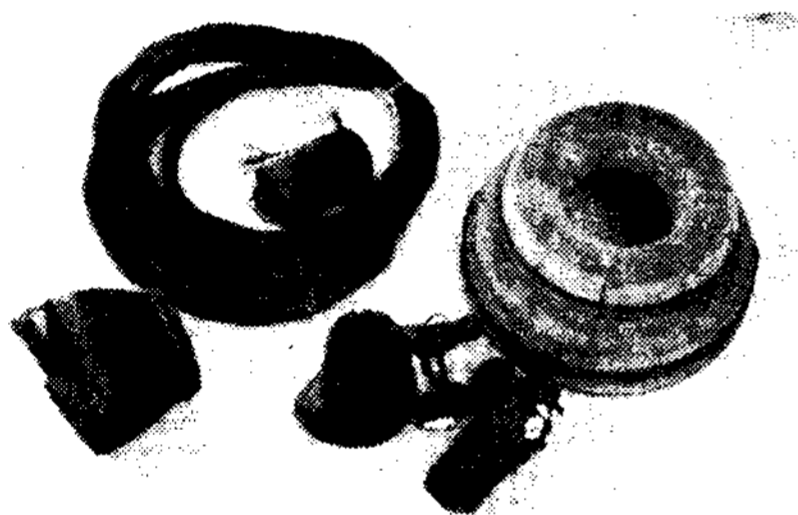
망건은 倭패 중에서도 上品으로 하고, 그 다음 품질로 탕건을 하고, 下品으로 총모자를 만든다.

그러므로 총모자류를 만드는 기술을 두루 섭렵했다가 재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시세가 좋은 것을 택하여 수익성에 따라 닥치는대로 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망건은 탕건이나 총모자에 비해서 매우 정교하게 해야 하므로 다른 것에 익숙해진 다음 단계에서 만들었다.

本島에서는 망건을 짠 뒤에 貫子를 달거나 하는 마무리를 하지 않고 말총으로 짠 상태로 商人에게 넘겼다.

망건작업도구(사진 2)는 “망건골” “첻대기” “마흐레(中折帽子)” “잉앳대” “잉애바늘” “편자차는 칼(王竹製:大小)” “바늘” 및 “물그릇”이 필요하다. 물그릇은 다른 총모자류 작업시에도 필요한데 이는 총이 건조하면 잘 끊어지기 때문에 물을 추가하는데 쓰인다.



〈사진 2〉 완성된 網巾과 망건골, 말총.

1991年 濟州市 三陽

망건의 품질은 섬세하고 고르게 짠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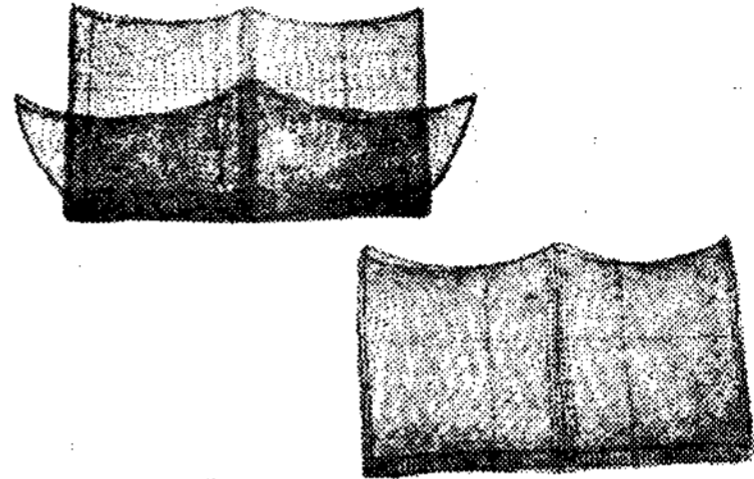
제작과정은 처음 편자짜기를 하는데, 잉앳대와 잉애바늘 편자짜는 칼로 너비 0.6cm 길이 58cm 정도 편직물 짜듯이 짠 뒤 망건골에 걸어서 바늘로 몸체 바닥을 엮기 시작한다. 이마 중심쪽 성근곳을 “앞간”이라고 하고, 양쪽을 “옆간”이라고 하는데 각기 너비 80cm 길이 200코 정도를 엮는다. 완성된 크기는 너비 7.5~8cm, 길이 57~58cm 정도이며, 완성되면 틀에 끼운채 모양을 바로 잡기 위하여 삶아내면 망건짜기의 일차공정이 끝난다.

### (2) 冠

현재 金功春氏와 따님 김혜정氏에 의해 제작되고 있을 뿐이며 冠에 대한 육성책은 없다.

冠은 과거에도 다른 총모자류에 비해 수요량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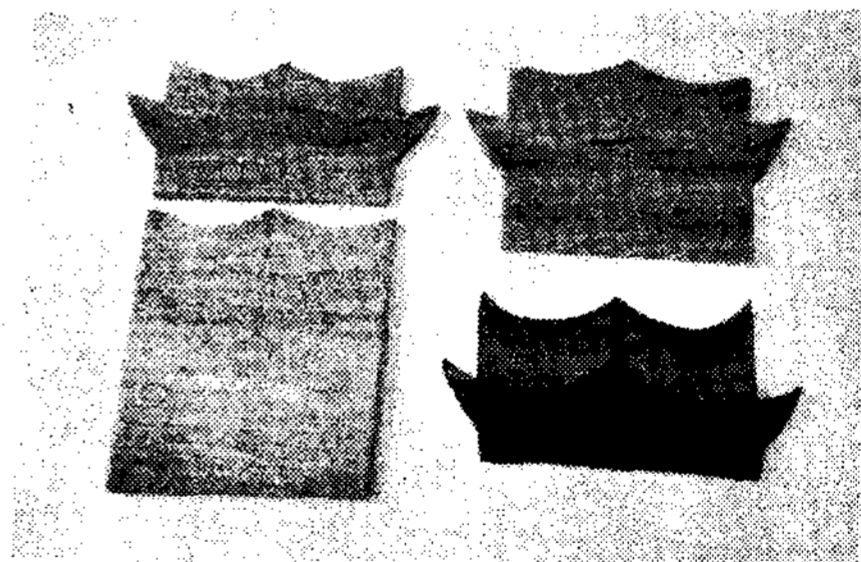
本島에서는 단층으로 된 것은 특별히 “말관”이라고 불렀고, 二層冠 程子冠은 모두 그냥 “冠”이라고 했다(사진 3). “말관”을 쓴 사람도 마을에서는 흔치 않았으며 書堂訓長 어른이나 되어야 겨우 二層冠을 쓸 정도였다 한다.



〈사진 3〉 이층관과 말관. 1991年 濟州自然史博物館

冠도 재료가 가장 좋은 것으로 했으며 기술이 능숙해야 만들게 되므로 고급품이 된다. 특히 높은 양반들이나 쓰는 물건이라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

쓰이는 용구는 탕건이나 망건이 비슷하나 다만 모자들(사진 4)만 바꾼다. 각기 말관이나 程子冠틀을 끼고 한다.



〈사진 4〉 이층관(金功春作)과 관틀(골).

1991年 濟州市 三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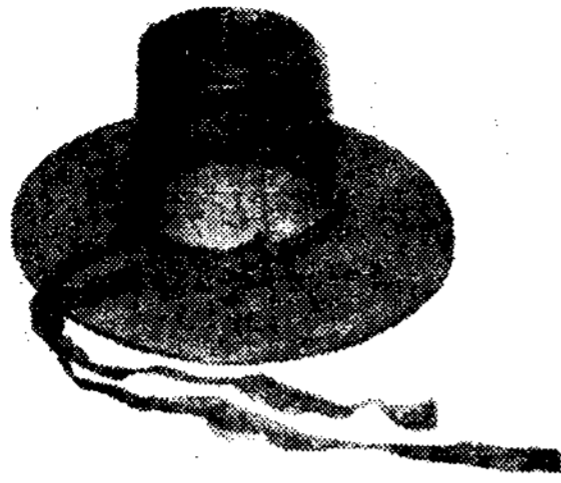
### (3) 갓(黑笠, 白笠)

갓은 일반적으로 黑笠을 통칭하게 된다(사진 5).

本島에서는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자통 부분(“총모자”라 한다)과 遮陽(“양태”라 한다)이 별도로 제작되고 있으며, 商人들에 의해 忠武나 巨濟島에 가서 완제품이 되었다.

갓만들기 작업은 濟州市를 중심으로 인근 東쪽과 西쪽 해안가 및 중산간 兩村 마을들에서 성행하였다.





〈사진 5〉 黑笠. 1991年 濟州自然史博物館

1) 총모자

本 島에서는 말총이나 쇠총을 이용하여 만든 모자류를 통털어 총모자 즉 총으로 짠 모자를 총칭 하지만, 별도로 갓의 윗통부분만을 “총모자”로 부르고 있다.

총모자 만드는 일은 “모즈튼다”고 하며, 생산지는 주로 濟州市 서쪽변두리를 끼면서 道頭 梨湖 外都로부터 涯月邑쪽까지이다.

主 생산지는 “도두근방 큰애기들은 모즈틀기로 다 나간다”는 민요처럼 현재도 濟州市 서쪽 해안가 道頭洞에서는 金仁(사진 6)氏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총모자는 단일



〈사진 6〉 총모자작업 : 총모자匠 金仁.  
1991年 濟州市 道頭

품목이 아니고 양태와 한 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품질도 같아야 하므로 두가지가 겸비해서 보조를 맞춰가야만 된다. 앞으로의 向方이 더욱 예측키 어려운 종목이다.

無形文化財 총모자 保有者인 金仁氏도 과거에는 최상품 진계량을 짰으나 지금은 전시회 출품작등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치의 제품을 주문이라든가 후계자 육성 때문에 작업은 하고 있으나 판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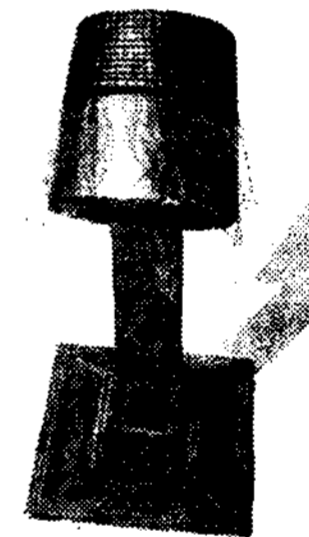
총모자 틀기는 도구가 간단하며 시간도 덜 걸리고 마무리 단계가 없으므로 간단히 기본만 익히면 할 수 있다.

총모자는 품질에 따라 진계량 중계량 장내기의 세 등급으로 나눈다.

진계량은 측면부 회전이 50줄 짜리인데 1줄 틀 때 4개의 총이 같이 돌아가므로 총의 수 200개가 회전된 셈이다.

총모자 트는 도구는 “모즈(모자)골” “골걸이” “바농대(바늘대)”가 필수이며, 이외에 “끼움골” “총사발” 등이 쓰인다.

모자트는 공정은 골걸이에 모자골을 걸고 모자 頂上부터 시작하여 빙빙돌아가며 측면으로 적당량 길이만큼 틀어 내려온다(사진 7). 마무리는 짓지 않은 상태로 商人에게 넘기면 商人들이 먹칠을 하고 양태와 함께 갓 만드는 곳으로 가서 완성품을 만든다.



〈사진 7〉 총모자골과 골걸이 : 작업진행중.  
1991年 濟州市 道頭

총모자에 쓰이는 총은 특별히 좋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冠이나 망건 탕건을 짜고 남은 것들로 짜기도 한다. 또한 다른 총모자류가 말총만을 주로 쓰는데 반해 쇠총도 섞어 쓰는데 쇠총은 짧지만 발이 고와서 오히려 말총으로 한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다.

현재 金仁氏는 翰京面 이시돌목장이 있는 楸旨里에서 濟州産 조랑말총과 쇠총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 말총은 3년에 한번씩 자르는데 길이가 짧을 뿐더러 조랑말 중에서도 특히 野山에서 放牧된 것은 총이 고르지 못하고 불량품이 많다.

2) 涼太

갓의 遮陽부분을 말하며 대나무로 만든다. 총모자와 함께 한 꾸미가 된다. “양대(涼臺)”라고도

하며 양태 만드는 작업은 “양태튼다”고 한다.

제주민요에도 있듯이 신촌과 벨도(禾化)근방이 主產地였다. 濟州市 동쪽을 끼면서 三陽 禾北 奉蓋 臥屹 松堂等地에서도 성행했는데, 이 지역은 총모자 짜는 西쪽과는 반대 방향이 된다.

현재 朝天에서 高丁生(사진 8)氏와 따님 張順子(사진 9)氏에 의해 계승되고 있지만 대나무 다루기가 어렵고 정규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에 계승의 한계를 느끼는 품목이다.



〈사진 8〉 양태작업 : 涼太匠 高丁生. 1985年 濟州市 朝天



〈사진 9〉 양태작업 : 涼太匠 張順子. 1991年 濟州市 朝天

양태도 모여서 작업하는 일척이 있는데 양태튼는 곳을 “양태청”이라 한다. 涼太도 살림에 보탬이 큰 경제적 이유로 해서 많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동침(銅針)아 나동침아 서월(서울)놈의 술잔 돌듯 어서 軒저(빨리) 돌아가라. 이양태로 큰집사 곡(사고) 이양태로 큰밭사곡 늙은 부미(부모) 공양호곡(하고) 일가방상(친척) 고적(顯蹟) 호곡 이웃스춘(사촌) 부지(扶助) 호계.<sup>15)</sup>

本島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涼太가 시작되고 성행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한 때는 租稅의 수단으로 또한 통치자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外的 강제수단에 의해 제작되기도 했을

것이다. 後代에 오면서 민요에 나오듯이 돈벌이 때문에 성행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본다.

涼太에 대한 기록은 英·正祖 때의 實錄에 자주 보인다.

英祖 37년(1761년) 제주에서 涼臺와 甘藷를 싣고 오던 배가 침몰 했으므로 진휼청에서 임금께 아뢰자 탕감하도록 했다<sup>16)</sup> 하며, 운송에 대한 것들도 英祖 39년부터 正祖年間에 걸쳐 수차례 거론된다.

正祖 18년(1794)에는 濟州 백성들의 원성들 가운데는 통치자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는데 양태와 전복을 무매 한 일이 있다<sup>17)</sup>는 것이다.

다음해 正祖 19년 濟州 牧使 李禹鉉이 移轉穀에 대한 양태와 미역을 대신 납부 하는 것이 전례인데 지금 민간의 형편이 전과는 다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하자 양태와 미역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면제 받게 되었다.<sup>18)</sup>

양태 제작과정은 먼저 竹을 용도에 맞게 쪼개고 다듬는 일들을 해야 한다. 대의 굵기가 세 가지로 나뉘어 다루어지는데, 제일 가는것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고르게 해야 한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하는 일을 “대 달룬다”고 하는데, 이 일은 일생토록 해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 대달루기가 서투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품질을 만들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샅을 주고 만드는데 마을에서도 1~2명에 불과했다 한다. 양태는 대를 만지는 솜씨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손쉬운 총모자짜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양태의 전승이 어려운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양태 성패의 초기 단계는 대나무 선택에 있다. 本島産 대는 下品에나 이용되며 주로 全南 담양이나 慶南 河東 晉州等地에서 들어온 것으로 했다. 바닷가에 대나무 장사배가 들어 왔다는 소문이 나면 배위에 올라가서 좋은 대를 고르느라고 야단이었다. 대나무는 음력 9·10월에 채취한 것이 잘 여물고 수분이 없어서 좋다. 張順子氏는 처녀 때부터 양태일을 배우면서 대나무와 양태 장사를 했는

15) 秦聖麒 編著.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pp. 147~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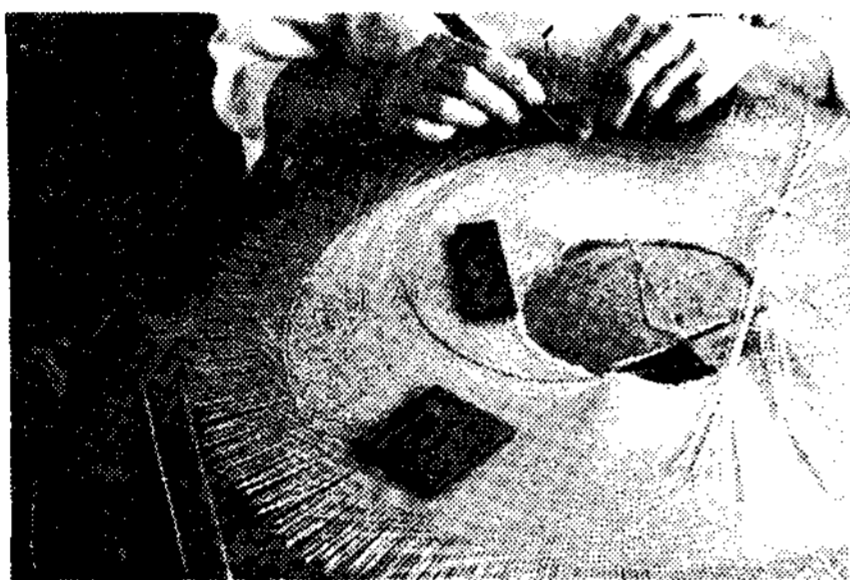
16) 朝鮮王朝實錄. 英祖 三十七年 七月 丁未 「賑恤廳達曰 濟州出送 涼臺 甘藷 大洋致敗 依法典蕩減 令曰依」

17) 實錄, 正祖 十八年 三月 己丑 참조.

18) 實錄, 正祖 十九年 五月 辛酉 참조.

데 담양에 직접가서 살면서 대나무를 고르기도 했다. 2年生 대의 키 중간 윗부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한다.

양태틀기는 처음에는 다듬어진 댓가지로 쌀을 실에 엮고 양태판에 올려 놓고 한번 걸으로 완성시키고(“줏는일”이라고 함. 螺沍形으로 돌려가면서 걸어간다), 다 되면 뒤집어서 다시 한다(“긋는일”이라고 함. 가는 대로 빗대를 科線으로 끼워 가는 일)(사진 10). 긋는 일이 끝나면 商人에게 넘긴다. 商人은 아교풀로 뽀뽀하게 정리한다.



〈사진 10〉 양태작업 : 마무리(뒤집어 긋기) 高丁生. 1985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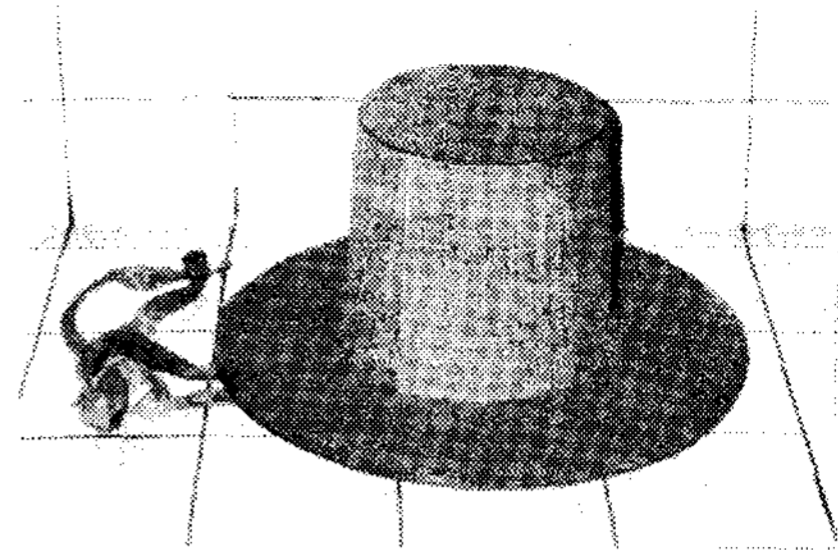
양태틀는 도구는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30cm 정도 높게 대나무로 만든 절구통형의 “팅애구덕”과 둥근밥상같은 “양태판” “바농대이”(쇠로 된 걸림코가 있는 코바늘) “긋짓대” “대칼” “대반흙” “무렵(무릎)장” “머럭” “대쌈” 등이 있다.

양태의 품질은 쌀의 빗대수와 도리수에 따라 구별되는데, “고분양태” “상계량” “중계량” “하계량” “濟涼”이 있다.

최상품인 “고분양태”는 도리수가 90 이상 쌀과 빗대수가 500여개 이상이며, “하계량”과 “濟涼”은 濟州産 수리대(細竹, 죽대)로 만든 것으로 도리수는 50정도 쌀빗대수도 300개 정도이다.

평상 나들이용 黑笠외에 國喪 때 쓰는 白笠도 제작했는데 白笠의 涼太를 “喪涼”이라고 한다.

國喪이 나면 冠禮以上에 든 男子들은 모두가 白笠(사진 11)을 써야 했으므로 다른 冠物製作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喪涼을 만들었다. 서툰 초보자가 만든 것도 물건이 딸릴 정도였으며 하루에 35도리짜리 2개씩도 만들었다. 특히 國喪이 나면 “대냥국상난, 현저 양태해사...” 하면서 다른 일을 재치고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이 되어 남자들은



〈사진 11〉 白笠. 1991年 濟州自然史博物館

대를 만져주고 여자들은 老少없이 양태틀기에 정신이 없었다 한다. 당시 喪涼 값은 “1양”이었는데 “대냥”이란 돈 1냥을 말한다. 현재 78세인 文癸生(女. 1914年生, 濟州市 呑羅洞)氏는 13세 때 國喪(1926年, 純宗)이 났는데 당시 洪역중이라 매우 위험한 病中이었지만 돈벌이 욕심에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喪涼을 만들어서 고무신도 사 신었다 한다. 사망이 모두 喪涼해서 돈번다고 난리이다 보니 아픈것도 모르겠고 좋은 기회를 놓치면 돈을 벌수가 없기 때문에 洪역을 어떻게 치루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한다. 國喪이란 흔한 일이 아니고 또한 그런 돈벌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한다.

#### (4) 宕巾

말총으로 만든 巾으로 탕건 만드는 작업은 “탕건튼다”고 하며, “탕건칭”(사진 12)에 모여서 작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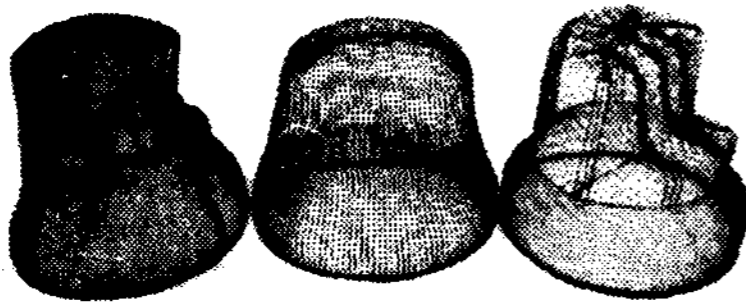


〈사진 12〉 탕건칭 : 1920年 濟州市 朝天

1895년 단발령에 의해 網巾 사용자는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宕巾은 1940년대까지도 그런대로 좋은 수입원이 되었다. 양태나 총모자와는 달리 單一품목이므로 독자적인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용자가 없기 때문에 한계에 달한 품목이며, 현재는 일곱살 때부터 시작했다는 金功春(사진 13)氏와 그 家族 및 몇몇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고, “바둑탕건” “겹탕건” “홀탕건”(사진 14)을 하고



〈사진 13〉 탕건작업 : 宥巾匠 金功春, 1991年



〈사진 14〉 탕건(겹·홀·바둑) : 宥巾匠 金功春氏作, 1991年

있다.

宥巾作業 중심지는 현재 濟州市 東쪽에 위치한 禾北과 朝天이었으며, 주변 咸德 三陽 新興等地와 濟州市 일원에 성행했었다.

禾北은 해변가 마을이지만 潛女가 없다. 本島에서는 潛女를 “물브재기”라고 賤視여기는 풍조가 있었는데 婚事에도 他地에서는 “물브재기”는 혼인 상대로는 실격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이 지역에서는 준일에 재주가 없고 정숙치 못한 처녀나 부인들이 “물브재기”를 한다고 했으며, 또한 벌이면에서도 좀일보다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他地 潛女들은 육지부나 海外에까지 나가서 잠녀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제주경제를 살렸다는데서 또 다른 측면으로 濟州女性의 경제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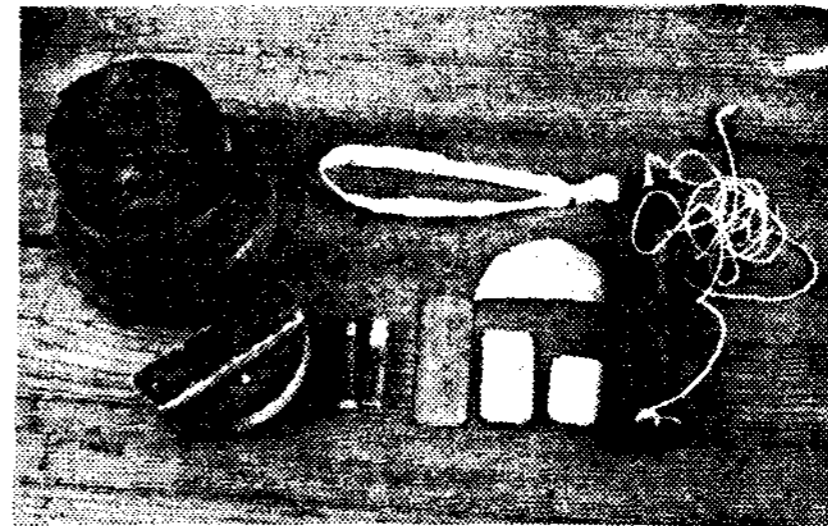
이곳 古老들은 준일이 너무 지겹고 싫증이나서 좀녀일이나 큰일을 하고 싶었으나 안되는 일이었다고 회상한다. “준일도 못하는 거”라는 말이 있다. 이는 他地域의 며느리나 숨씨 없는 며느리 즉, 준일도 못하는 며느리를 보았을 때 빈정대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탕건 작업에 쓰이는 도구(사진 15)는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간편한 用具들로 “탕건틀” “채대기” “탕건바농” “마흐레” 외에, “땀” “박죽” “장

냥” “냥(나무)못” “중둥띠” “물그릇” 등이 있다.

탕건 뜨는 작업과정은 처음에는 탕건골에 맞춰 아래서부터 짜기 시작하여 위쪽으로 올라가서 머리 정수리쪽에서 마친 다음 다시 세로로 줄따라 휘감 뜨기를 한다. 완성되면 모양을 바로 잡고 탕건골에 끼운채 삶는다. 마무리 작업을 한차례 더 마친 뒤 다시 삶아내면 완성된다.

탕건의 명칭은 짠 모양이나 품질에 따라 붙이는데 겹이나 홀이나에 따라 “겹탕근” “홀탕근”, 굵기에 따라 “좁(細)진탕근” “중탕근” “성근탕근”, 문양에 따라 “줄살린탕근” “막줄탕근” “바둑탕근”이라고 하고, 섬세하고 고르게 짜진 것을 上品으로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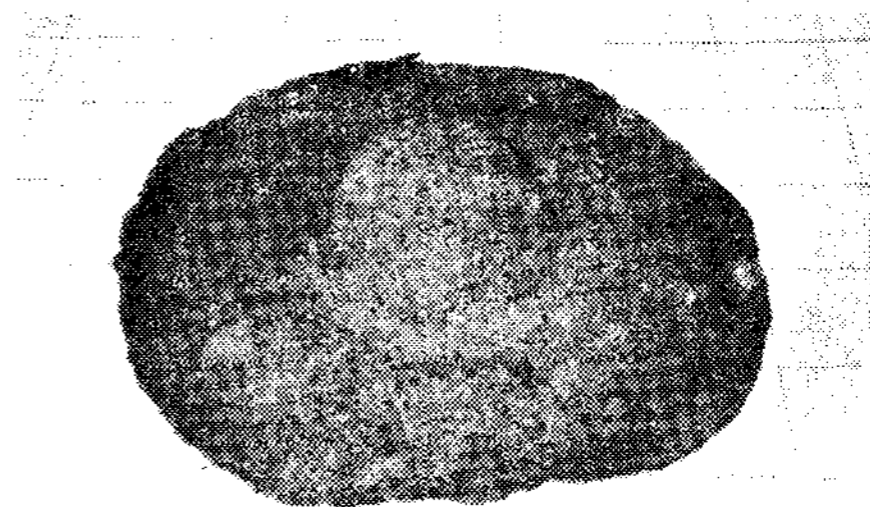


〈사진 15〉 탕건작업도구(金功春), 1985年

(5) 털벌립

쇠털로 만든 笠形의 모자로 지역에 따라 “털빙것” “털빙거지” “빙거지” “빙긋”으로 불리고 있다 (사진 16).

주로 山間地域의 農家와 牧者들이 비오는 날 밭일이나 들일 나갈 때 썼다. 또한 이 모자는 총알이라든가 화살이 뚫을 수 없기 때문에 朝鮮後期 濟州에서 자주 발생했던 民亂 때 가담했던 民間人들도 방탄막이로 쓰기도 하였으며, 軍帽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사진 16〉 털벌립 (털빙것) : 1991年 濟州自然史博物館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四·三事件(1945년) 이전만 해도 山間農家에서는 많이 썼으며, 비오는 날 “쇠태우리”들(마소를 돌보는 사람)이 마소를 돌아 보러 갈 때에 비옷으로 雨裝을 입고 머리에 털병것을 쓰고 나가면 웬만한 비바람에도 까뚝없었다고 한다.

임방신(男. 1892年生, 1971. 8 말씀)氏도 李在守亂(高宗 38년 1901. 天主教亂)때도 彈丸防牌로 사용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며, 洪貞杓(男. 1907年生, 1971. 1 말씀)氏는 쇠털로 만든 軍帽이며 本島에서 軍帽로 쓰여진 것은 신축민요(1901年) 때 마지막이 되고 1906년에 營羅卒이 해산 때까지 썼다. 그 후부터 農家에서 利用하였으며 李在守 선교난 때 尹元求 牧使가 官의 사령들을 歸農토록 할 때까지 둘레가 작은 검정것을 사용했다고 한다.

現存하는 遺物들로 濟州의 털벌립과 陸地部の 戰笠·병거지를 비교하여 보면 형태는 대강 비슷하지만, 재료라든가 차양의 너비 머리통이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陸地部の 것은 사람의 머리통이 모자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것(戰笠: 머리통직경 18cm, 차양너비 9cm), 머리에 얹을 수 있는 것(병거지: 머리통직경 14cm, 차양너비 7~8cm)이 있는데, 모자통은 대부분 둥근 반원형이며 겉에는 猪毛로 덮힌 것도 있고 매듭 밀화 등의 장식이 있는 것도 있다.

반면 本島의 털벌립은 現存하는 유물에는 장식이 전혀 없고 재료도 완전히 牛毛로만 되어 있으며 머리통도 좁은 편이나 머리가 반쯤 들어 갈만큼 운두가 낮고 차양은 넓다(모자高 12cm, 총지름 46~7cm, 차양너비 14~15cm, 머리통지름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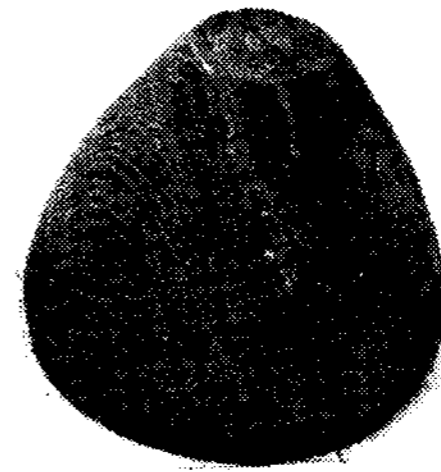
어쨌든 濟州의 털벌립이 軍帽로 쓰여졌다는 증거는 미비하지만 島内の 수요에 충당키 위한 自給自足要求로 제작 되어졌을 것이며, 또한 陸地部の 수요에도 충당되었을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털벌립 제작과정은 털을 모아서 깨끗이 빨아 말리고 활로 끌고루 태워서 편 다음 모자골(사진 17)에 맞춰가면서 콩풀로 접착시켜 만든다.

쇠털은 털갈이 때나 “부구리”<sup>19)</sup>를 굵어 낼 때 빠지

는 털을 모으는데 약 12근(1근=600g)정도면 된다.

털벌립은 수명이 길어서 오래 쓸 수 있고 매 집마다 만들지는 않았지만 주로 山間部落 男性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지금은 박물관에 유물로 몇 점이 남아 있을 뿐 제작하는 사람은 없다.



〈사진 17〉 모자골: 정당벌립, 털병것, 대패랭이 공용. 1985年 濟州大學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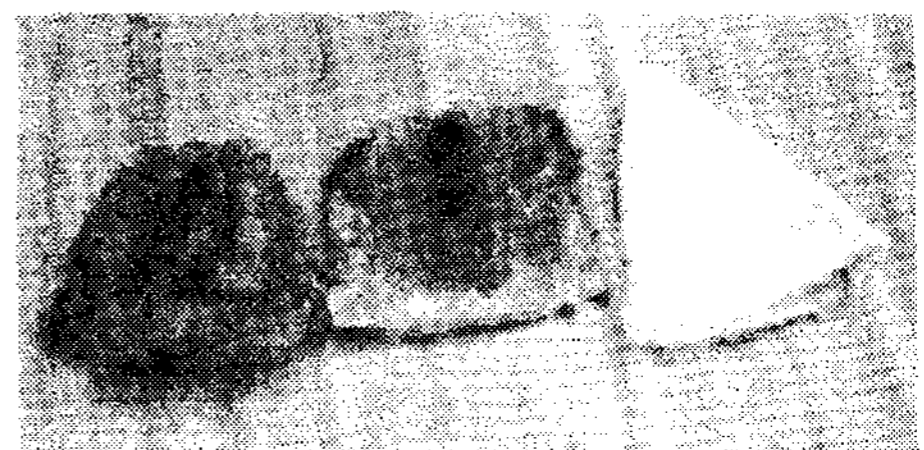
(6) 가죽감투

감투형의 털로 된 모자로 털은 밖으로, 皮는 안으로 되어 있다. “가죽감태” “감타”라고도 한다.

주로 山間地方 牧者들의 防寒用帽로 오소리 소노루 토끼 등 짐승의 털을 쓰는데 대개는 작은 짐승의 털을 이용했다. 감투의 명칭은 짐승에 따라 붙이기도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오소리털로된 것들이어서 감투하면 “오소리감투”라고 할 정도이다.

작은 동물의 털을 이용한 것이므로 형태는 고깔형인 것 네모형인 것이 있고, 뒷목덜미 쪽을 길게 내려 덮어서 防寒의 효과를 높이도록 만든 것도 있다(사진 18).

牧者들이 눈 쌓인 산에 갈 때 가죽감투를 쓰고 가죽두루마기에 가죽발래를 입고 가죽버선과 설피



〈사진 18〉 가죽감투: 1970년 濟州民俗博物館

19) 소의 피부에 기생하는 벌레로 피를 빨아 먹으면서 자라면 큰 콩알만큼 커진다. 생명에 지장이 있으므로 수시로 “굵갱이”(쇠를 톱니처럼 만든것)로 굵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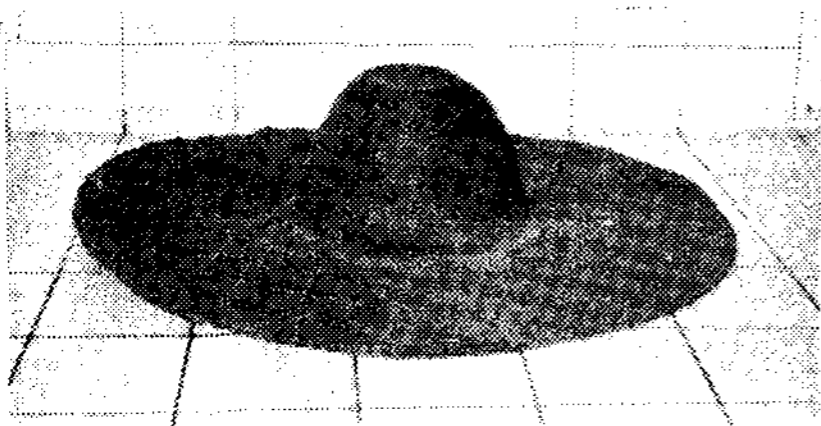
로 무장하면 최고의 防寒服이 갖추어진 셈이다 (사진 19). 그러나 이렇게 갖추는 것도 대단한 財力을 과시하는 것으로 아무나 갖추기가 어려웠다. 1930年代까지도 이용되던 것이 지금은 博物館에 몇 점이 남아 있을 뿐이다.



〈사진 19〉 牧者服 : 가죽감투, 가죽두루마기, 가죽버선, 감실신. 1900年代初

(7) 정당벌립

“정당(동)”이란 野山에 많이 나는 “댕댕이덩쿨”을 말하며, “벌립”이란 笠形의 모자를 뜻한다. 차양이 넓어서 夏節期 遮日用으로 썼다. 정동 재료가 좋거나 비에 적시지 않으면 오래 쓸 수 있으며 매우 시원한 느낌이 드는 모자이다(사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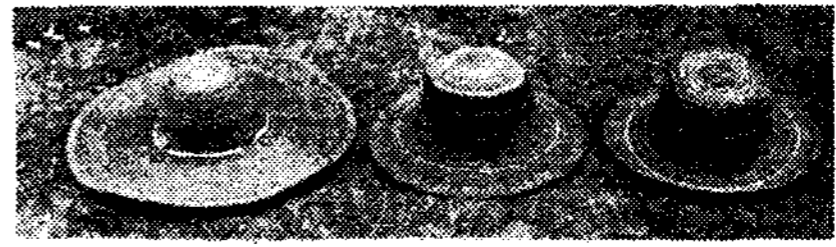


〈사진 20〉 정당벌립 : 1991年 濟州自然史博物館

男女共用이긴 하나 주로 男性들이 썼다.

主生産地는 北濟州郡 翰林邑 歸德이다. 農閒期 男性들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지금도 洪萬年(사진 21)氏를 비롯한 城路洞일대 주민들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품들은 과거 전통적인 정당벌립형이 아니고 觀光상품으로 개발된 각종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정동재료는 本島 全域 野山에서 自生하지만 大靜 安德 表善面等地 것이 良質이며, 濟州市 산천 당부근에서도 주로 채취하고 있다. 1~2年生 정동덩



〈사진 21〉 정당벌립과 정동모자 : 洪萬年氏作. 1985年 翰林邑

쿨은 음력 8月初 추석 전에 길우어서 지붕위나 돌담 등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고루 잘 쬐이는 곳을 택하여 널어 말리는데 밤에 이슬을 맞히면 더욱 좋다.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비를 맞거나 썩거나 하면 良質의 품질을 얻지 못하므로 신경을 쓰면서 말린다.

제작시 필요한 도구는 과거에는 “모자골”을 틀로 하여 만들었으나, 지금은 과거의 모자골은 쓰지 않고 있으며 “다으개” “칼” “송곳” “판대기” 등 간단한 도구가 이용된다.

품질은 정동재료의 質과 도리수에 따라 나뉘는데 下品은 도리수가 70정도이며, 上品은 100도리 이상이나 되고 차양도 넓으면서 가볍고 얇게 짜인 것이 된다.

임방신(男. 1892年生, 北濟州郡 大靜面, 1971년 8월 말숨)氏는 정당벌립은 차양이 넓어서 바람이 불거나 빨리 걸어가면 차양이 까딱까딱 하므로 “약속벌립”이라고도 했으며, 農帽이므로 官家에는 쓰고 갈 수가 없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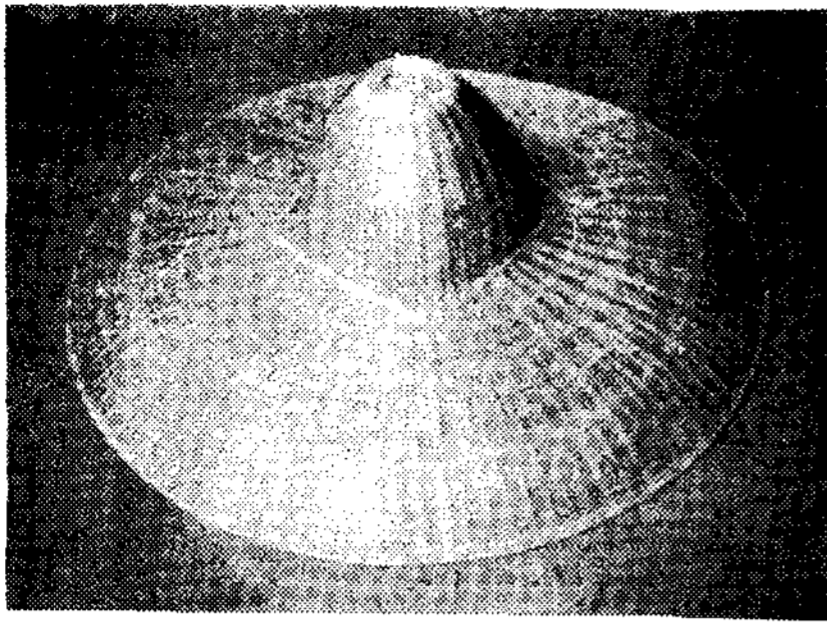
現在 남아 있는 遺物들을 보면 모자통이 낮은 편이므로 머리통에 맞으나 폭 썩워지지 않게 되면서도 차양이 넓어 합리적인 이름용 모자로, 곱게 짠 것은 매우 정교해서 實用과 土俗美를 겸비하고 있다(총지름 51cm, 차양 16cm, 모자高 12cm, 머리통 너비 19cm).

(8) 대패랭이

대나무로 만든 笠形 모자로 정당벌립이나 털벌립과 같은 모자골을 이용한 것으로 형태가 같다(사진 22). 다른 모자류에 비해 값이 싸고 실용적이다. 男女 모두 쓰지만 주로 女性用이며 夏節期 遮日用이다.

濟州産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보통 2~3년생으로 이른봄에 채취한 곧고 길게 뻗은 것으로 한다.

生産地는 東部 城山邑 水山과 蘭山等地에서 농한



〈사진 22〉 대패랭이 : 1985年 濟州民俗博物館

기 男性들이 제작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竹製品인 애기구덕 구덕 삿갓 및 초석 등 家內手工業이 男性들에 의해 성행하였다.

만드는 도구로는 “패랭이골”과 “패랭이판” “대칼” 등이 사용된다.

대패랭이는 대나무의 皮(겉)로 한 것이 上品이며 과거에는 염색하지 않았으나 근래에 와서 함배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염료로 노란색물을 들이는데 색깔이 곱기 때문이라 한다. 현재 김귀봉(男, 1919年 生)氏 등이 제작하고 있다(사진 23).



〈사진 23〉 대패랭이작업 : 김귀봉氏作.

1985年 城山邑 蘭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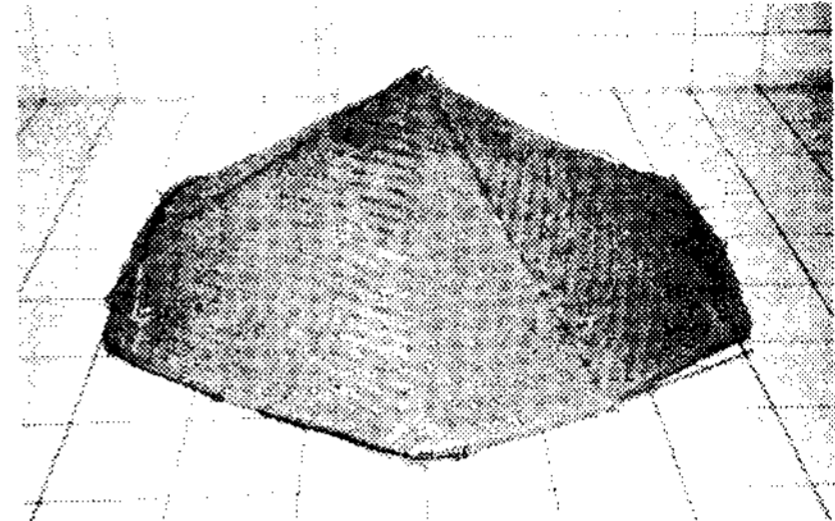
품질은 대의 곱기와 섬세도, 도리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운 皮竹으로 만들고 차양이 넓으면서 정교하고 가벼운 것이 上品이 된다(모자高 12cm, 차양지름 51cm, 차양너비 17cm).

판매방법은 과거에는 男性들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城山 等 인근 五日市場에서 팔았다.

### (9) 삿갓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농한기 男性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山形이면서 가장자리는 六角形이며

男女公用이나 주로 女性들에게 이용되었다(사진 24). 다른 모자류에 비해 차양이 깊고 커서 遮日 또는 防雨用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



〈사진 24〉 삿갓 : 1991年 濟州自然史博物館

女性에 있어서 삿갓은 傘으로 이용되며, 동시에 좋은 제품은 衣冠이었다 한다.

특히 삿갓 중에서는 外出 때 內外用으로 썼던 “서삿갓”(“서대삿갓”이라고도 함)이라는 고급품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皮竹으로 정교하고 곱게 만든 것으로 가끔 염색한 竹을 장식으로 섞기도 하지만 보통은 완성된 것의 모자 꼭대기와 가장자리에 물색(주로 藍色)천으로 곱게 襷를 둘러 美와 實用을 겸한 것이다. “서대삿갓”은 貧富의 차를 가름하는 물건이기도 했다. 잘 사는 집에서는 며느리를 맞으면 첫해 여름에 며느리에게 마련해 주기도 했으며, 여름철 나들이 할 때 건지머리 엮고(수건을 그 위에 쓰기도 하고) 서대삿갓을 쓰고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3는대(細竹)구덕<sup>20)</sup>을 끼고 나가면 최고의 호사였다 한다.

일반용 삿갓은 들이나 밭일 나갈 때 쓰지만, 서대삿갓은 쓰다가 낡아져야 勞動用으로 쓰게 된다. 밭에서 일하는 女性들 중 서대삿갓을 몇명이나 썼느냐에 따라 집안의 위세를 과시하는 표본이 되기도 하였을 정도로 고급용품이었다.

主 生産地는 대패랭이와 같이 東部의 城山 表善 舊左일대 및 濟州市 三陽 回泉等地에서도 竹製品이 성행했는데, 특히 멘촌의 삿갓이나 구덕이 上品이었다.

서대삿갓이 과거에는 女性 外出時 內外用으로 쓰던 것이 차츰 實用的인 것으로 변하여 일반 삿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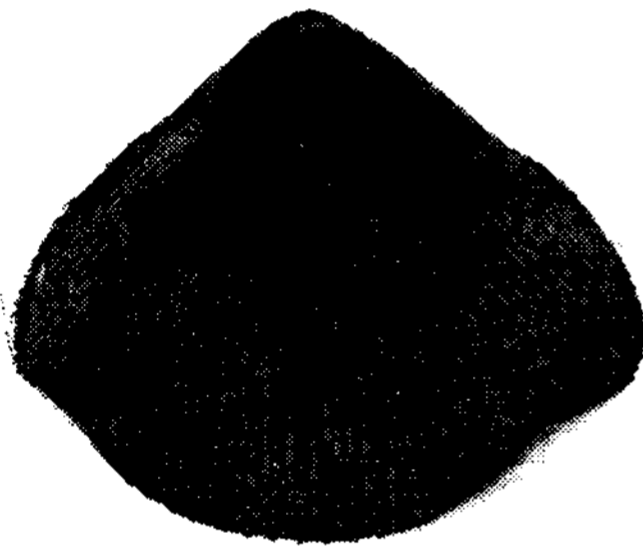
20) 정방형의 가는대(細竹)로 정교하고 곱게 만든 대바구니이다. 간단한 小品들을 담을 수 있으며 주로 부주용 떡을 담는다(허리에 끼고 한쪽 팔로 잡음 : 높이 15cm×사방 30cm 정도).

처럼 쓰이게 되었으며, 그 후 대패랭이가 작고 가볍고 값싸기 때문에 널리 쓰다가 근래에 와서는 밀낭·보리낭패랭이가 대신 쓰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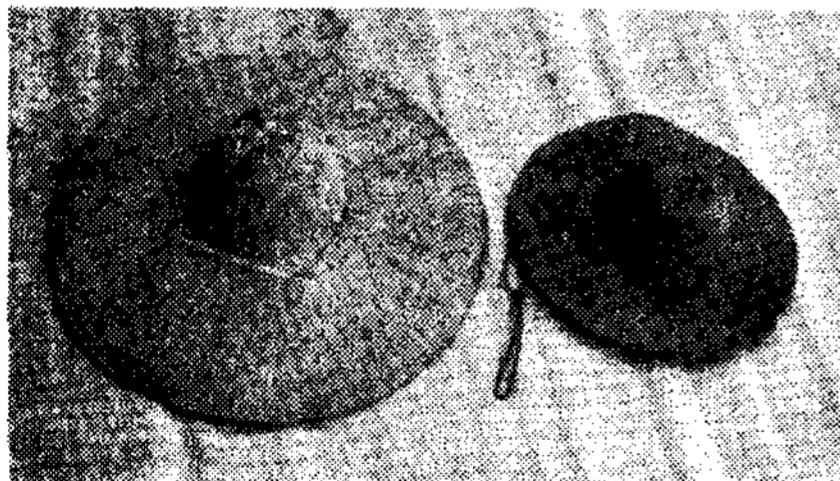
(10) 方笠 및 패랭이

男性들에 의해 제작되며 竹製品을 다루는 지역에서 生産된다.

喪主가 된 男性들이 外出할 때 쓰고 다니는 喪笠으로, 부모님을 여윈 죄인이라 하여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三年동안 근신의 상징이기도 했다. 方笠은 차양의 경사가 깊고 가장자리 四面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사진 25). 方笠은 本島에서도 “牧安”(지금의 濟州市) 쪽이나 “兩村” 사람들이나 쓸 수 있었으며, 아랫층 사람들은 “패랭이”(“패리”라고 함)를 쓰고 다녔다(사진 26).



〈사진 25〉 方笠 : 1991年 濟州自然史博物館



〈사진 26〉 대패랭이와 패랭이 : 1985年 濟州民俗博物館

대나무는 陸地部 것으로는 方笠을, 本島産으로는 패랭이를 주로 만들었으며 方笠은 四面이 샷갓형인데 반해, 패랭이는 차양이 있는 笠形이다.

(11) 밀낭·보리낭패랭이

이삭을 털어낸 밀이나 보리의 꼭짓대로 만든 笠形 모자이다(사진 27).

夏節期 遮日用으로 썼으며 만드는 방법이 쉽고 재료구입이 용이하므로 男女老少 모두 손쉽게 만들어 썼다.



〈사진 27〉 勞動服 : 갈옷, 밀낭패랭이.  
1985年 城山邑 蘭山里

1940年代부터 기계로 多量生産되어 판매되었던 밀짚모자를 본따서 만들기 시작하였다.

밀이나 줄보릿대는 길고 질기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었지만, 일반 쌀보릿대는 기장이 짧고 약해서 바꾸어다가 쓰기도 했다. 줄보리나 밀은 주로 여유있는 집에서나 지었기 때문이었다. 밀대나 보릿대를 길고 가늘고 윤이 많아나는 것으로 골라서 꼭짓대를 자르고 물을 추가면서 세가닥 또는 네가닥으로 길게 많이 땀은 다음, 머리 꼭대기서부터 알맞은 크기로 돌려가며 실로 꿰매면서 모자를 만든다. 재료를 구하기가 쉽고 또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男女老少가 밖에서 일할 때 遮日 또는 防雨用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V. 맺는말

本稿는 地方 土着民 生活의 일면을 정리해야 된다는 現時的 요구에 의해 民俗學的 조사방법에 의해 研究한 것이다. 濟州地域이 갖는 특질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남겨졌는가, 왜 그런 것들이 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작업은 매우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固有의 傳統속에 살아온 마지막 세대들이 가기 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계층들의 생활상을 정리하는 일은 다른 하나의 역사서를 엮어내는 기초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衣冠을 整齊 해야만 他人을 접견했던 風土속에서 양반사회의 帽子類를 제작했던 곳이 바로 濟州였으며, 濟州 女性의 손에 의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록도 없다.

어쨌든 本島의 帽子類 제작은 계층사회에서 계급표시 수단으로서의 冠帽가 아니라 日常 儀禮用



이면서 實用的인 것들을 제작했으며, 日常 노동용은 주로 男性이, 섬세한 총모자류는 女性이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帽子製作의 재료들은 주로 本 島에서 自生되는 것들 또는 잉여산물들로 충당되고 있으나, 多量이 필요하거나 고급제품의 재료들은 필요에 의해서 外地에서 수입되어 졌다. 이는 本 島의 朴한 기후 풍토에 의해 재료가 조잡했기 때문이다.

本 島에서 특히 女性들에 의해 帽子類 중에서도 총모자류 제작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男性들의 日常 勞動用 관모제작에 비해 경제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外的으로 통치자들의 수탈이라든가 租稅에 충당키 위한 강제적 압력 등의 필연성들에 의한 것도 배재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現在 濟州市를 中心으로 女性들의 관모공예가 성행되었던 이유는 지리적으로 陸地部와 가깝고 따라서 航路도 적합한 위치이며 정치 중심지가 되었으므로 陸地 來往人과의 商去來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갑자기 변모해 버린 현실속에서 가치를

상실해 버린 이런 작업들은 民族文化의 傳承이라는 國家的 시책속에서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세대들이 가면 현재 전승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 2~3世들조차도 귀찮고 의미없는 일들로 버려질 위기에 있다.

조상들의 삶속에서 갖가지 형태로 활용 되어졌던 遺物들이 博物館의 골동적인 전시품이라든가 미개했던 시대에 살던 조상들이 쓰다 남은 낡은 골동으로서가 아닌, 물질 정신적인 유산을 되살리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

### 參 考 文 獻

- 高富子『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1971.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청구논문  
 秦聖麒 編著『南國의 民謠』1977. 正音社  
 『朝鮮王朝實錄』仁祖·顯宗·英祖·正祖實錄  
 『生活狀態調查』1929. 朝鮮總督府  
 『濟州年鑑』1969. 濟州年鑑社  
 『濟州道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1986. 濟州道